

사랑하는 나의 아버님 허 아무개

나의 아버님은 일제 강점기인 1910년 5월 1일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에서 6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셨습니다. 할아버님과 할머니께서는 농사를 작게 지으셨는데 큰 아버님과 둘째 아버님께서 학교에 다녀야 했기에 학비를 마련하시느라고 생활은 항상 쪼들렸습니다. 고모님과 아버님은 소학교(지금의 초등학교)만 졸업을 한 후,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와야만 했다 합니다.

아버님은 큰 형님과 둘째 형님처럼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형편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학교에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섭섭한 생각을 한 적이 없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동네 대부분의 또래가 초등학교도 못 가는 시절이었기에 때문입니다. 책 읽기를 좋아했던 아버님은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이 사용하던 빗 바란 책들을 열 번, 아니 서른 번... 틈이 나는 대로 그 책들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거칠고 굵은 이마의 주름, 굵고 투박한 손마디, 까마잡잡한 피부, 환갑을 맞이하신 아버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눈망울은 이슬과 같이 영롱하고, 입가에는 항상 미소를 머금고 계시는 아버님의 모습은 천진스러운 천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은산면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웃 구룡면에 사는 처녀를 아내로 맞은 아버님은 은산면을 벗어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은산면 지킴이셨습니다.

아버님은 할아버님과 같이 슬하에 6남매를 두셨습니다. 셋째인 저를 포함하여 큰 누님, 둘째 누님, 넷째 여동생, 다섯째 남동생, 여섯째 여동생입니다. 넷째까지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고, 다섯째는 해방이 된 이듬해에, 여섯째는 늦둥이로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태어났습니다. 어렵던 시절이었으나, 아버님은 우리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항상 최선을 다해 도와 주셨습니다. 누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 고등학교는 부여에 있는 친척 집에서 다녀야 했는데, 아버님은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 친척 분에게 항상 큰 빚을 지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되면, 그 빚을 꼭 갚으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 친척분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자식 같이 항상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방학이 되면, 우리들은 모두 은산면에 모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농사일을 도와 드립니다. 가끔은 농사일이 싫어 피를 내어 도망을 치지만, 아버님은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회초리가 우리들의 종아리를 푹푹처럼 휘쓸고 갔습니다. 회초리는 항상 서럽고 원망스러운 존재였으나, 지금 생각하면, 아버님이 자식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 모두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셨는지, 나의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우리 자식 모두에게 귀가 따갑도록 하신 말씀 몇 가지를 적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하니 남에게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형제들과 항상 우애가 있게 지내라. 그리고 형제간에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형제는 내 몸의 일부이니, 형제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내 몸 일부를 망가트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는 말씀이 제일 기억납니다.

이마의 굵은 주름과 이슬과 같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갖고셨던 아버님은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자하셨던 아버님의 모습은 아버님의 가족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님이 우리 남매들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내용을 후손들 모두 항상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져 봅니다. 아버님 많이 사랑합니다.

2025년 9월 1일

아들 허00 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이정순

이정순,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한 부여군 구룡면에서 첫째 딸로 태어난 나의 어머님 이름입니다. 본관은 한산(韓山)이며, 어머님의 징조할아버님이 진사를 하셨다고 하여, 구룡면에서는 진사댁이라 불렀다 합니다. 그러나 가세가 계속 기울어서 어머님께서 성장하실 때는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여덟 남매 중 넷째입니다. 위로 오빠가 세 분이나 계십니다. 또 아래로는 여동생 두 명과 남동생 두 명이 더 있습니다. 열일곱 앓된 나이에 스물한 살이던 아버님에게 시집을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셋째였으나, 큰 아버님과, 둘째 아버님이 분가를 하여 다른 곳에 사셨던 관계로, 어머님께서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 제사를 비롯하여 각종 대소사는 모두 어머님의 몫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식사 준비, 농사와 허드렛일 모두 어머님의 몫이었습니다.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할 시간 없이 항상 바쁘게 사셨던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의 곱던 손 또한 어느새 굵고 못 생긴 손으로 변했습니다. 태양 빛에 그을린 얼굴과 팔 다리는 어머님의 모습을 어느 깊은 시골의 할머니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의 졸업식에도 시부모님을 모시느라 건너뛰기가 다반이였습니다. 그러나 은산면을 떠나 살던 자식들이 명절을 맞아 은산면 집에 모이면, 언제 준비를 해 두셨는지, 모든 자식마다 당신이 손수 지은 농산물이 크고 작은 자루에 각각 담겨서 한 꾸러미씩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는 그 동안 알뜰히 모으셨던 돈을 아낌없이 푸셨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얼굴만 보아도 마음이 푸근해 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겠지만 나의 어머니의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그 누구보다도 크고 위대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위에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친정이 먼 곳도 아닌데, 어머니는 시집을 오신 후, 친정을 방문하신 횟수를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친정어머니의 회갑연(친정아버님은 환갑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을 때와 아버님 과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게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 말에 여자는 “출가외인” 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 말이 정말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삶이 좋아져서, 이제는 가고 싶은 곳 어느 곳이던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시절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대한민국에 계시지 않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매 식사 때마다 각종 음식을 양보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런 저런 핑계로 멋진 곳에서 맛있는 식사도 제대로 대접을 못 해드렸습니다. 변변한 여행도 못 시켜드렸습니다. 신경통으로 고생하실 때, 그 혼한 온천 한 번 제대로 모시고 가지 못한 것이 큰 후회로 남습니다. 어머니 많이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생전 사진은 아버님의 가족사진에 함께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

아들 허00 씀